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수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¹⁾ 내과학교실²⁾

태 경¹⁾ · 이용섭¹⁾ · 이근영¹⁾ · 이형석¹⁾ · 안유현²⁾ · 박용수²⁾

목적 :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칼슘, 인산 및 골대사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최근 생화학검사와 영상검사 발달로 과거에 비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동반한 부갑상선 종양 환자의 고찰을 통해 향후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 1999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한양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수술 받은 2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임상양상, 진단적 검사, 영상 소견, 수술 및 치료 효과를 알아보았다.

결과 :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6세(22~70세)였으며 남자가 9예(40.9%), 여자가 13예(59.1%)였다. 술 후 병리조직검사 결과 선종이 18예(81.8%), 과증식증이 1예(4.5%), 암종이 3예(13.7%)로 진단되었다. 모든 예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419.6 ± 680.2 pg/dl) 되어 있었고, 과증식증 1예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혈청 칼슘이 증가(1.52 ± 0.36 mg/dl) 되어 있었다. 요통 및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12예(54.5%)였고 피로 및 전신무력감이 10예(45.5%), 소화기

관련 증상이 5예(22.7%)에서 나타났다. 2명(9.1%)의 환자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요로결석과 소화성 궤양의 과거력이 각각 3예(13.6%), 2예(9.1%)에서 있었다. 병변의 위치 확인을 위해 시행한 영상검사 중 부갑상선주사(^{99m}Tc-sestamibi scan)는 18예 중 15예(83.3%), 경부 초음파는 21예 중 13예(61.9%),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은 19예 중 11예(57.9%)에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예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선종 1예와 암종 1예에서 재발이 관찰되었다.

결론 :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초기 진단으로는 생화학적 검사소견이 중요하였고,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갑상선주사(^{99m}Tc-sestamibi scan)가 83.3%로 가장 정확하였고 경부 초음파와 함께 검사 시 보다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였다. 수술 전 검사 소견과 영상 검사만으로는 암종을 확실히 감별하기 어려우며 수술 시 주위 조직이나 장기와의 유착이 발견되면 반드시 암종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겠다.